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한 달간 화엄법석 연다

오는 12월 20일 입재해 2026년 1월 18일 회향
〈화엄경〉 따라 이어지는 통도사 대표 산림 법회
품차 설법으로 화엄 사상 전통적 구조 제시해
선·교·율 대표 강백 해석으로 경전 의미 확장


지난해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화엄산림 법회 모습. 올해 화엄산림대법회는 12월 20일 입재해 2026년 1월 18일 회향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화엄산림대법회를 연다. 법회는 12월 20일 입재해 2026년 1월 18일 회향하며, 한 달 동안 경내 설법전에서 대중에게 화엄의 가르침을 전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매년 겨울 화엄산림을 열어 〈화엄경〉 공부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산림법회는 특정 경전을 정해 일정 기간 매일 강설하는 전통을 말하며, 화엄산림의 경우 〈화엄경〉을 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지속성과 경전 전체의 흐름을 통찰하는 체계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모아 왔다.

또 통도사는 과거부터 강원 교육과 교학 전승에 힘써 온 도량으로, 해마다 겨울 화엄산림을 통해 선·교·율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님들의 법문이 펼쳐져 왔다. 대중은 각 스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 경전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산림이라는 이름처럼 '공덕의 숲'을 함께 가꿔 가는 수행공동체를 경험한다. 통도사는 "〈화엄경〉이 펼쳐 보이는 세계는 차별과 분별을 벗어난 자리이며, 대중이 한 법석에서 함께 수행하고 배워 가는 것 자체가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법회는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 총장)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석이 열린다. 종범 스님은 강원 교육과 교학 연구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스님으로, 입재에서 화엄 세계관을 개괄하며 산림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는 〈화엄경〉의 주요 품들이 하루 단위로 이어진다. 수진 스님(조계종 계단위원)이 '세주묘엄품'을, 연각 스님(송강사 강주)이 '여래현상품'과 '보현삼매품'을, 도업 스님(화엄 법계사 회주)이 화엄의 우주관을 담은 '세계성취품'을 강의한다. 아울러 신공 스님·인해 스님·선지 스님·일면 스님 등 대강백이 차례로 법석에 올라 화엄의 사상 구조를 짚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지점을 안내한다.

12월 29일에는 우진 스님(전 통도사 강주)이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게찬품을 설하며, 다음날 오전에는 월하 스님의 추모다례재가 봉행된다. 연말연시에는 범해 스님(전 중앙종회의장)과 반산 스님(전 쌍계사 강주)이 '십주품'·'범행품' 법문을 이어가 새해 첫날부터 화엄의 새로운 장들이 펼쳐진다. 1월 4에는 수불 스님(범어사 율주)이 '승도솔천궁품'을 설하고, 이어 지현 스님·경성 스님·법산 스님 등 강백들의 〈화엄경〉 강의가 이어진다.

1월 13일 오전에는 벽안 스님 추모다례재가 예정돼 있으며, 회향 법문은 중봉 성파 대종사가 맡아 법석을 마무리한다.

법회는 입재 오전 10시 20분, 회향은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그 외 평일 및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20분에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중은 일정에 맞춰 원하는 날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여러 번 동참해 경전의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체득할 수 있다.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가 단순한 경전 강의가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고 보살행의 정신을 익히는 수행 과정"이라며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와 경쟁의 세상에서, 화엄의 가르침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법회 기간 동안 경문 독송과 예불, 예참 등을 함께하며 수행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2만원, 생축 동참은 1인 10만원이다. 접수는 통도사 기도접수처(화엄전)에서 가능하다.

055-381-1288

'2025 인도영화제' 성료…韓·印 문화교류

11월 27~30일, 부산 영화의전당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2025 IFF(Indian Film Festival) 인도영화제'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 올해 13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는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의 후원으로 마련돼 인도영화가 지닌 예술적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를 국내 관객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올해 상영작은 총 7편으로 구성됐다. 개막작 '12학년 낙제생(12th Fail)'을 비롯해 '만주멜 보이즈', '굿모닝 맨하탄', '한번 뿐인 내 인생', '비크람', '헬라로', '시조우' 등이 나흘간 차례로 상영됐다. 작품들은 인도의 일상과 신념, 사회문제, 청춘의 고민 등을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내 관객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 스님은 "인도영화의 서사에는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며 "이번 축제가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연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김장나눔 '복지시설 200박스' 전달

11월 30일, 전달식 개최



금정총림 범어사가 겨울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을 위한 김장 나눔을 진행했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경내 하후원에서 김장을 실시했다.〈사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총무국장 대방 스님 등 대중 스님들을 비롯해 신행단체 회원, 산하법인기관 종사자, 보현회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약 3000포기의 김장을 마무리했다.

범어사는 이날 마련된 김장 가운데 1000여 포기를 선별해 200박스로 나눠 담고,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산하시설, 금정구 관내 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총무국장 대방 스님은 "범어사가 매년 겨울 진행하는 김장 나눔이 지역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상담개발원, 명상·치유 결합 '생명살림법회'

11월 30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메시지 확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은 11월 30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생명살림법회'를 봉행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마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명상과 치유를 결합한 이번 법회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릴레이의 하나로 마련됐다.〈사진〉

법회에 앞서 열린 생명살림캠페인에서는 생명존중 리플릿이 배부되고 생명살림 서약이 진행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서약 활동을 통해 법회 참여를 일상적 실천과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날 법문은 선업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움직임 명상'을 주제로 진행했다. 스님은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호흡과 자세, 감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며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불안, 우울, 강박 같은 고통을 비추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손가락을 들어 펴고 접는 간단한 동작을 안내하며 "이 움직임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했고, 이를 통해 몸과 감정, 생각, 욕구, 의식으로 구성된 오온(五蘊)의 구조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흐름'임을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이어 스님은 현대인들이 겪는 반복적 반추(反芻)의 문제를 짚으며 "되새김은 자연스러운 작용이지만 반복될수록 고통을 더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상은 반추가 만든 굳은 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치유의 실천이며, 결국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한다"고 법문했다.

생명살림법회는 불살생·자비·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사상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명상과 쉼 중심의 실천 활동을 결합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불교기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약 2800여 명이 참여했다. 법회는 불교계의 명상 수행을 사회적 자살예방 활동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안윤지 무용가, '향무'로 울림 전한다
〈香舞〉

12월 14일, 양산문화예술회관서



전통춤의 정중동(靜中動) 미학을 기반으로 수행적 움직임을 탐구해 온 안윤지 무용가〈사진〉가 12월 14일 오후 5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신작 '향무(香舞)'를 무대에 올린다.

안윤지 무용가는 "'향무'는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서도 진리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낸 표현"이라며, 이는 생전에 '향성(香聲)' 개념을 통해 향기와 소리의 울림으로 진리의 자리를 비유했던 경봉 스님의 사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대는 불교적 상징성이 뚜렷한 승무(이매방류)를 비롯해 살풀이춤(이매방류), 부채춤, 민요, 화선무, 아쟁산조, 진도북춤 등 7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